

세 상 의 변 화 를 만 들 다

열어달려 어른, 공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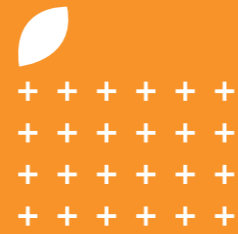
자립준비청년 23년 임팩트 보고서 **하이라이트**



The Beautiful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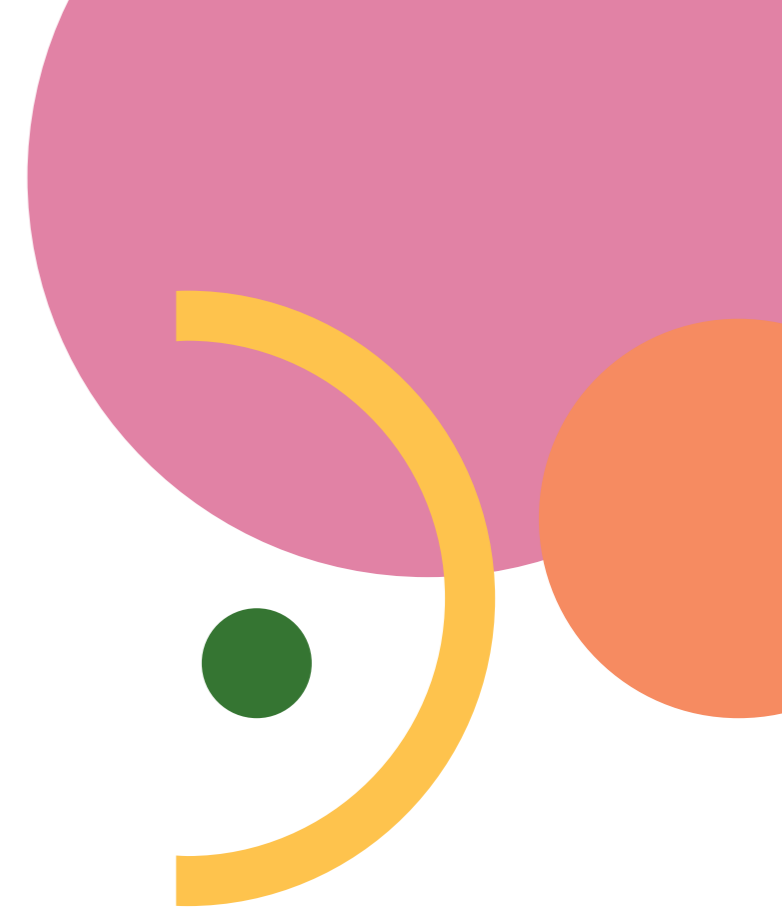
원문 보고서 보기





보통의 자립을 꿈꾸다

자립은 온전히 혼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손을 맞잡고,
때로는 서로의 등을 기대고 서는 것,
그것이 보통의 자립입니다.
하지만 열여덟 어른은 자립이라는 이유로
'만 18세'에 홀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을 향해 공명하다

세상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을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욱 열심히
열여덟 어른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이를 계기로 열여덟 어른의 온전한 자립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세상에 점점 크게 점점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마중물이 되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열여덟 어른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을 향한 공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열여덟
어른,
공명하다

목차

인사글	발간사_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한찬희	08
	축사_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정익중	10
아름다운재단 소개	‘아름다운재단다움’이란 무엇일까요?	12
자립준비청년 현재 이슈	자립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16
자립준비청년사업 히스토리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사업 23년	18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24
지원사업 및 캠페인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26
	자립지원 시기별 특성 : 정책 변화와 민간지원	28
자립준비청년사업 임팩트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임팩트	32
	인터뷰_“청년들의 실패할 권리도 응원합니다”	42
	‘열여덟 어른’ 캠페인 임팩트	44
	인터뷰_“느리더라도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경험했죠”	54
향후 방향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사업 향후 방향	58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협력단체 및 기부자	61

온전한 자립을 위한 모두의 발자취를 담다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공명하다》 임팩트 보고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과 행복을 위해 걸어온 모두의
발자취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

모든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하는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길

- #아름다운재단 설립
- #아름다운재단의 1호 기금
- #故 김군자 할머니
- #자립준비청년
- #열여덟 어른

아름다운재단이 설립된 2000년은 故 김군자 할머니와의 인연이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읜 후 야학에서 여덟 달 동안 공부한 것이 배움의 전부였던 할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해 삶이 더욱 힘들었던 것 같다”며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머니의 전 재산을 아름다운재단에 기탁하셨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1호 기금인 <김군자할머니기금>을 통해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보육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퇴소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많은 분들의 기부와 참여를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 경제교육, 자립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에 보다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열여덟 어른>과 같은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높아진 이웃들의 관심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수많은 정책 도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지난 20여 년간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다음 20년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열여덟 어른, 공명하다》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걸어온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의 모든 청년들이 사회의 행복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기초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한 찬 희**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공명하다》 임팩트 보고서 발간을 축하하며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열여덟 어른
#위로와 격려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20여 년간 헌신해 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발자취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귀한 보고서에 축하를 전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한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으로서,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과 성장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로서 이번 아름다운재단의 임팩트 보고서 발간의 의미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 연구자로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외롭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재단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기관들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으로만 접근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재단은 이들을 권리 주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은 홀로서기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하는 과정이며, 함부로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이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며 서투르지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 미친 변화는 그 지원을 받은 청년들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이웃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게 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堂堂하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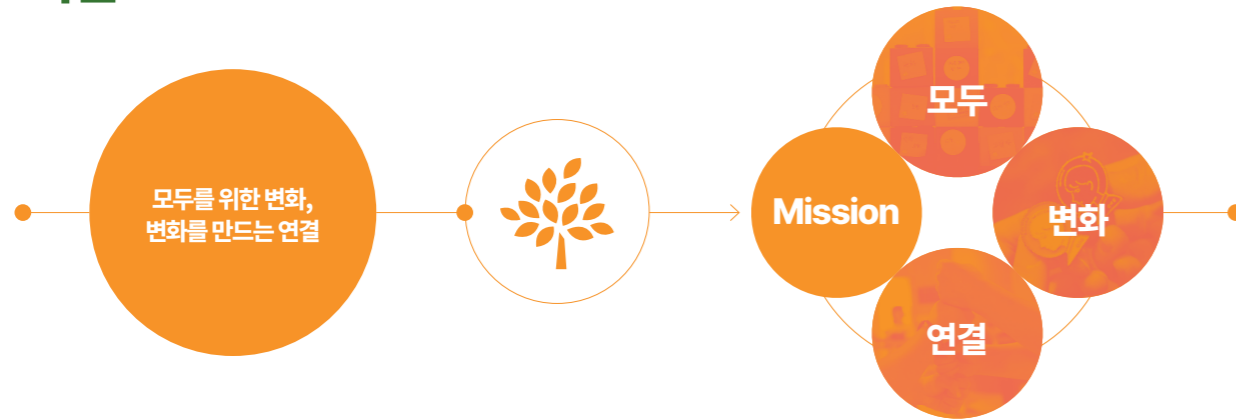
이 보고서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의 고민과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자세히 알림으로써 또 다른 변화의 새로운 불씨가 당겨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세상은 절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며,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힘든 사람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어떤 이는 힘든 누군가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어 줄 때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적은 관심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다시 한 번 《열여덟 어른, 공명하다》 임팩트 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다움’이란 무엇일까요?

2000년 8월 창립한 아름다운재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찾은 ‘아름다운재단다움’을 소개합니다.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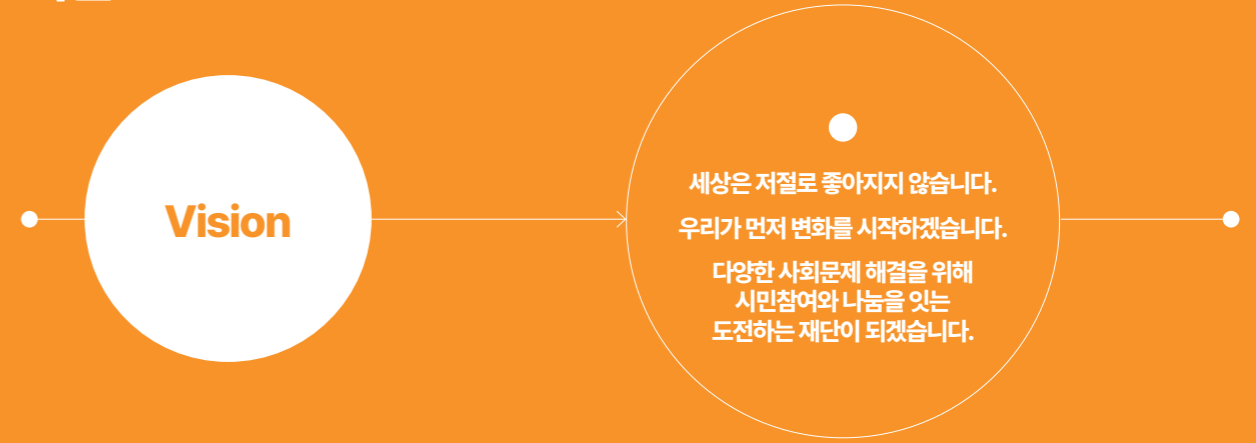


모두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지향점입니다. 우리 특정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만드는 세상엔 소외와 차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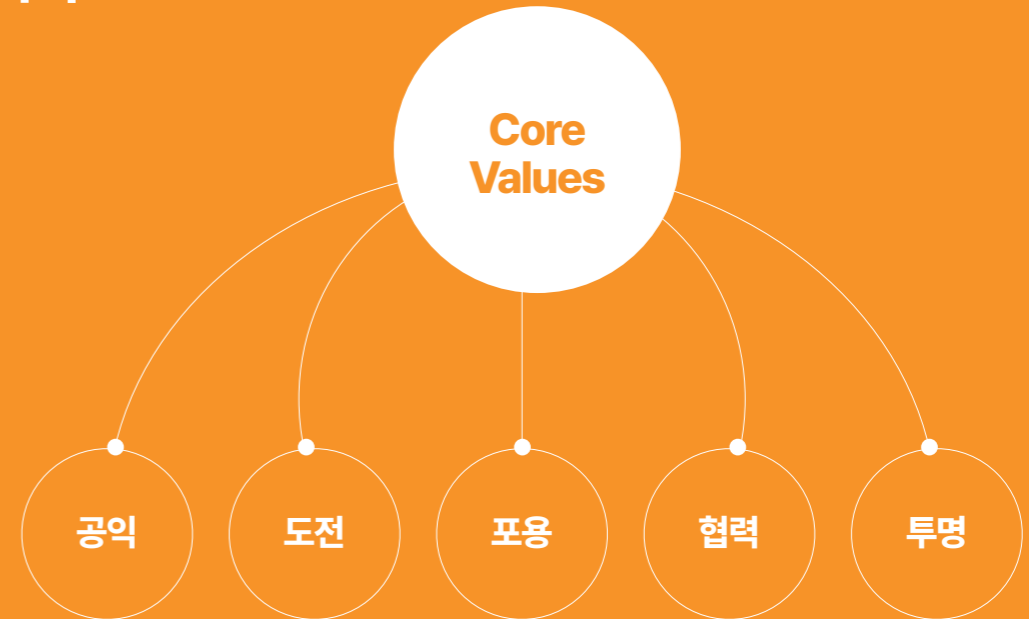
변화란, 우리는 허황된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당장의 변화보다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부터 시작해 정책과 제도까지 차근차근, 끈기 있게 나아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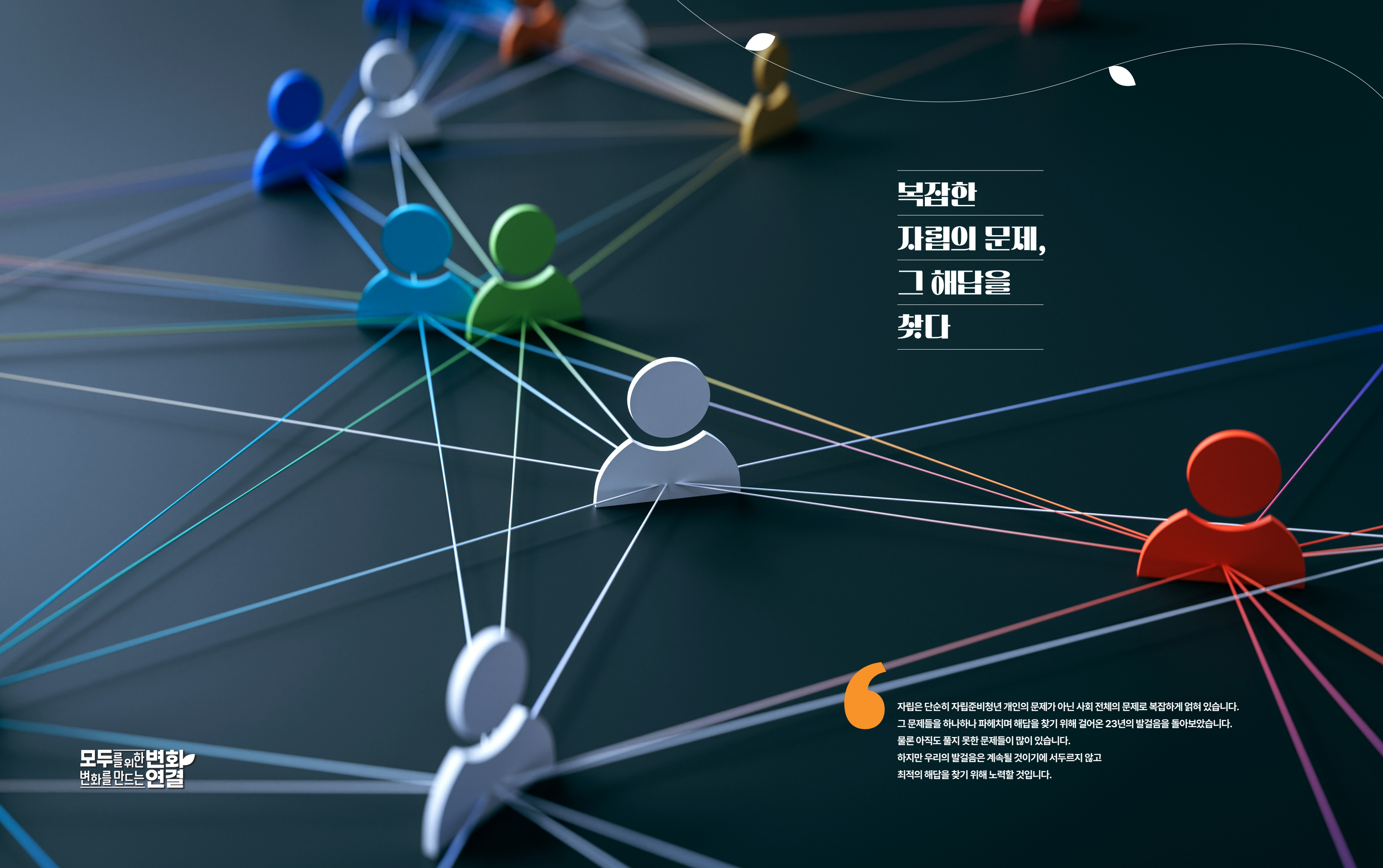
연결이란, 우리의 정체성에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연결자’입니다. 개인과 단체, 사회가 지닌 선의를 연결해 협력할 아젠다를 만들어냅니다.

비전



핵심가치





복잡한
자립의 문제,
그 해답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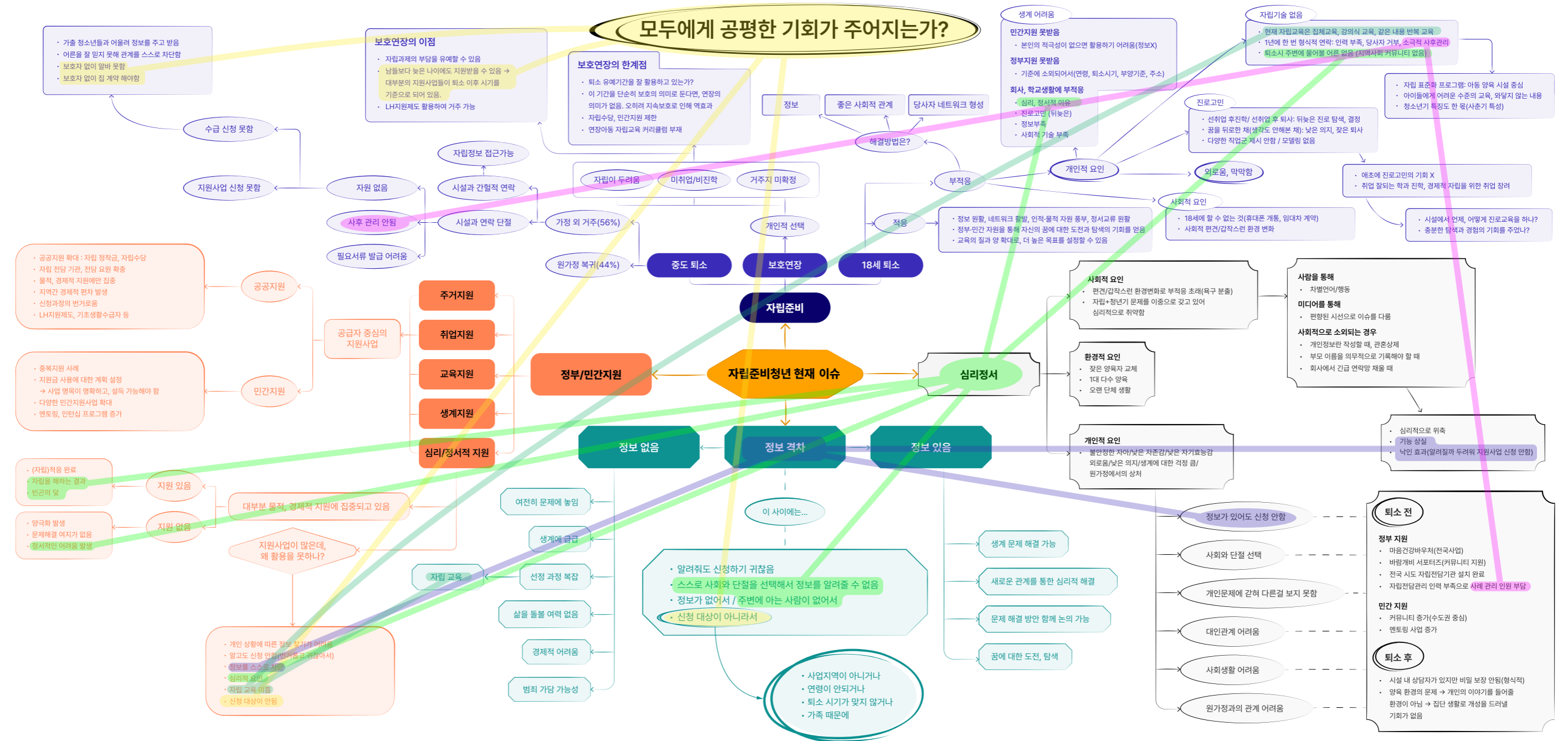


자립은 단순히 자립준비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며 해답을 찾기 위해 걸어온 23년의 발걸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기에 서두르지 않고 최적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립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가 직접 살펴보고 공부한 자립준비청년 현재 이슈를 확인해 보세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가?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사업 23년

아름다운재단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

-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인상, 지원정책이 없던 지역의 지원 개시(2015)
- 이후 2019년 자립정착금 최소 500만 원 권고 등으로 확대됨

- 연극 <열여덟 어른> 클라우드펀딩 및 초연

- 유튜브 <열여덟 어른TV> 개설
- 팟캐스트 <열여덟 어른이 살아간다>개설

- '어쩌다 사막' 일러스트 굿즈 출시 및 판매
- 런웨이백 출시 및 펀딩

- 동화책 《나의 어린, 고래에게》 출간
- 연극 <열여덟 어른> 6개 도시 전국투어

- 이진명 디지털싱글 '토이스토리' 발매

- 책 《안녕, 열여덟 어른》 출간

-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 전개 및 당사자 캠페이너 활동 시작
 - 신선, 당사자인터뷰
 - 전안수, 굿즈제작
 - 박도령, 연극 <열여덟 어른>

-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2 전개 및 당사자 프로젝트 진행
 - 신선, 당사자 미디어 채널 운영
 - 허진이, 보육원 방문 강연
 - 손자영, 미디어패러디
 - 주경민, 캐릭터 디자인 및 웹툰 연재
 - 박한수, 패션제품 디자인
 - 안연주, 동화책 제작

- 열여덟 어른 투자설명회 개최

- 국무총리 제38차 목요대화, 한찬희 이사장과 신선, 허진이 캠페이너 참여

-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3 전개 및 당사자 프로젝트 진행
 - 이진명, 힙합 음원 발매
 - 신선, 1:1 방문교육
 - 허진이, 고민 팟캐스트
 - 손자영,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 조규환, 땀큐 버스킹
 - 박강빈, 자립100days
 - 강영아, 일촌 파도타기

- 열여덟 어른 신선, 박강빈 캠페이너 청와대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참여

- '열여덟 어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행사 개최
-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행사 개최

- 《안녕, 열여덟 어른》 북콘서트 10회 개최

- '열여덟 어른' 캠페인 브랜딩 영상, 에피어워드 광고제 최고상 수상

- 열여덟 어른 신선, 손자영 캠페이너 대통령직속 자립준비청년 특위 정책지원단 참여

23년

2019

-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 길잡이(선배장학생) 활동 시작
 - 심리/정서지원
-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시작
 - 주거지원
 - 심리/정서지원
- 청소년복지시설퇴소경계선지능 청소년주거지원사업 시작
 - 주거지원
 - 심리/정서지원
-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토론회 개최

2020

-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시작
 - 교육지원
 - 심리/정서지원
- 통신비지원사업 시작
 - 생계지원

2021

- 청년배움지원사업 시작
 - 교육지원
 - 심리/정서지원
-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 시작
 - 생계지원
-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시작
 - 생계지원
 - 교육지원
-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시작
 - 생계지원

2022

-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시작
 - 심리/정서지원

2023

- 청소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시작
 - 교육지원
 - 심리/정서지원
- 노숙위기청년주거지원사업 시작
 - 주거지원
 - 심리/정서지원
- 가정밖청소년교육비지원사업 시작
 - 교육지원
-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및 캠페인 임팩트 연구 실행

정부 정책의 변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0만 원 신설(2019.04)
- 정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시작(2019.07)

- 정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발표(2021.07)

- 정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2차 발표(2022.11)

- 정부 '대통령직속 자립준비청년 함께서기 위원회' 출범(2023.04)

소통과 지지 위에 나를 드려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촘촘한 지원사업과
자립준비청년들이 주체가 된 ‘열여덟 어른’ 캠페인,
이로 인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민간 지원까지 하나되어
함께해온 노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2019년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1의 당사자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사업 목적

사업명	목적	지원인원(명) 2023 기준	사업 수행 기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안정적인 학업유지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 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도모	991	2001년 ~ 현재
주거안정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주거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자립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 기반 구축	236	2016년 ~ 2018년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쉼터포함 비진학 자립준비청년)	비진학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활동 및 신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정착 기반 지원	100	2020년 ~ 현재
청년배움지원사업 (비진학자립준비청년)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통한 경험 격차 축소 및 선택권 보장,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전망 마련	45	2021년 ~ 현재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회복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146	2021년 ~ 현재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대상 종잣돈과 경제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제생활을 운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	150	2021년 ~ 현재
통신비지원사업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통신비 지원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139	2021년 ~ 2023년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	보호종료 후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키트 지원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의 경험 제공	385	2022년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문화 및 여가를 누릴 기회 제공 및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전망 마련	100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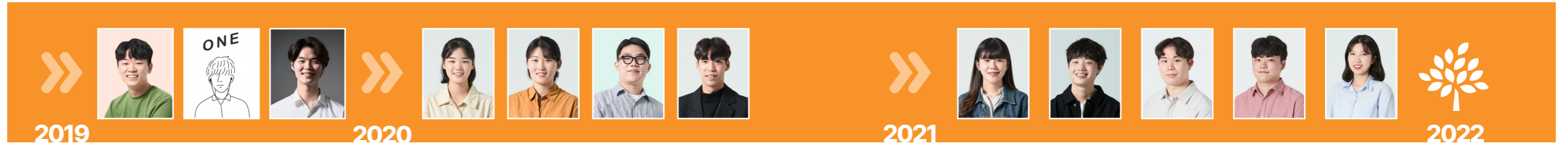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교육비, 주거비, 문화활동비 등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업명	구분	내용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교육비 지원	·교육비: 대학 등록금 및 자기계발비 ·학업생활 보조비: 생활비 등 학업 생활 중 필요한 항목에 자유롭게 사용 ·해외 어학연수(별도 선발)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OT, MT, 홈커밍데이, 모니터링 ·작은변화 프로젝트: 주제별 팀 활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안정적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비 지원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주거관리 교육, 재무 교육 및 주거 전문 사례 관리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쉼터포함 비진학 자립준비청년)	진로 활동비 지원	·진로 활동비: 희망 진로 관련 직접적인 활동 지원 ·활동 보조비: 공과금, 교통비, 식대 등 진로 활동을 위한 기본 생계비 및 간접비 ·리더십 지원비: 그룹 리더 활동 보조비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OT, MT, 결과 공유회, 모니터링 ·희망별프로젝트: 문화 체험 ·취업 교육 및 특강
청년배움지원사업 (비진학자립준비청년)	배움 활동비 지원	·재정 컨설팅을 통한 개별 맞춤형 배움 활동비 지원 ·배움 활동비: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위한 교육비 및 배움 활동 보조비 지원 ·기초 자립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기초 자립비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OT, 또래 활동, 결과 공유회, 모니터링 ·1:1상담: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존감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생활 안정금 지원	·긴급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종잣돈 지원	·상장지수펀드(ETF) 지원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자립 역량 강화	·경제 교육, 1:1 재무 컨설팅 지원 ·OT, 결과 공유회
	통신비 지원	·휴대폰 단말기 1인 1대, 통신비 1년, 휴대폰 수리비 지원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	자립 키트 지원	·보호종료 후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선택형 키트 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	·팀별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OT, MT, 네트워킹 파티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아름다운재단은 201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의 현실화, 체계화를 요구하는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을, 2019년부터는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며,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소개합니다.



왼쪽부터 신선 전안수 박도령 허진이 손자영 주경민 박한수 안연주 이진명 조규환 박강빈 강영아

당사자 프로젝트



신선 캠페이너

- 기간: 2019~현재(시즌1~시즌3)
- 주요 활동 내용
 - 당사자 인터뷰 프로젝트 진행, 한겨레21 연재
 - 팟캐스트 [열여덟 어른이 살아간다] 기획, 제작
 - 유튜브 [열여덟 어른 TV] 채널, 자립정보 영상 콘텐츠 제작
 - 네이버 카페 운영
 - 그룹홈, 위탁가정 1:1 대면 교육 진행



박도령 캠페이너

- 기간: 2019(시즌1)
- 주요 활동 내용
 - 연극 [열여덟 어른] 시나리오 집필
 - 연극 텀블벅 펀딩 진행
 - 연극 행사 기획, 진행



전안수 캠페이너

- 기간: 2019(시즌1)
- 주요 활동 내용
 - 원배지 디자인
 - 원배지, 에코백 해피빈 펀딩 진행
 - 디자인 과정 웹툰 연재



박한수 캠페이너

- 기간: 2020(시즌2)
- 주요 활동 내용
 - 런웨이 가방 기획, 제작
 - SM엔터테인먼트, 모델 송해나 협업
 - 런웨이백 네이버 해피빈 펀딩 진행



주경민 캠페이너

- 기간: 2020(시즌2)
- 주요 활동 내용
 - 캐릭터 굿즈(머그컵, 폰케이스) 기획, 제작
 - 카카오테이머즈 협업 펀딩
 - 웹툰 '어쩌다...사막' 연재



이진명 캠페이너

- 기간: 2021(시즌3)
- 주요 활동 내용
 - 음원 기획, 제작 총괄
 - 음원, 토이스토리 제작
 - 뮤직비디오 제작
 - 음원 유통(카카오 엔터테인먼트)
 - '열여덟 어른의 세계' 행사 공연



허진이 캠페이너

- 기간: 2020~현재(시즌2~시즌3)
- 주요 활동 내용
 - 보육원 강연 위한 당사자 모집, 교육
 - 전국 보육원 강연 진행
 - '열여덟 어른 투자설명회' 진행
 - 고민 팟캐스트 기획, 제작
 - 인스타 채널 운영
 - '열여덟 어른의 세계' 행사 진행



손자영 캠페이너

- 기간: 2020~현재(시즌2~시즌3)
- 주요 활동 내용
 -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 애드보커시, 경향 인터랙티브 협업 진행
 -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패러디 일러스트 협업
 - 온라인 전시회 진행 및 영상 제작
 -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진행
 - 청년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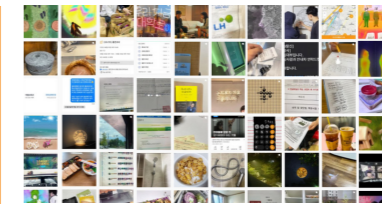
안연주 캠페이너

- 기간: 2020(시즌2)
- 주요 활동 내용
 - 동화책 《나의 어린, 고래에게》 출판, 유통
 - 동화책 네이버 해피빈 펀딩 진행
 - SM엔터테인먼트, 소녀시대 써니 협업 진행
 - 오디오북 출판



조규환 캠페이너

- 기간: 2021~2022(시즌3)
- 주요 활동 내용
 - 옥상 버스킹 행사 진행
 - 광주역 버스킹 행사 진행
 - 팽귄 버스킹 브이로그 영상 제작



박강빈 캠페이너

- 기간: 2021~2022(시즌3)
- 주요 활동 내용
 - 백우리 인스타그램 운영 (100일간의 자립 경험 공유)
 - 당사자 자립 경험 인터뷰 진행
 -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출연



강영아 캠페이너

- 기간: 2021~2022(시즌3)
- 주요 활동 내용
 - 일촌 브이로그 영상 제작
 - 당사자 관계망 설문조사 진행

자립지원 시기별 특성: 정책 변화와 민간지원

(1) 정책 변화¹⁾

항목	2019 이전	2019	2021	2022	2023
명칭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연령		만 18세+α	만 24세+α		
	사유	대학 이하 학교 재학 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어학연수 시 보호 일시중지 단순 휴학 1년 이내 허용	어학연수 시 보호 일시중지 폐지, 단순 휴학 2년 이내 허용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 비활성화로 법정대리권 공백 등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기관	기관	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 7개소 운영(1993)	자립지원전담기관 8개 시·도에 운영	자립지원전담기관 17개 시·도에 운영	
	인력	아동복지시설 자립전담 요원 배치(2007)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전담요원 배치(2012)	전담요원은 시설마다 배치되어 분절적으로 보호아동 자립을 지원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신규 자립지원전담 인력 120명 ²⁾	자립지원전담 인력 180명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자립정보ON 개설	
지원금	자립정착금	최대 500만 원 지자체별 상이	최소 500만 원	800만 원 권고	1,000만 원 권고 (보통 지급)
	자립수당		월 30만 원 신설(시범운영) 보호종료 3년 이내	월 30만 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월 35만 원
	디딤씨앗 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2007)	정부매칭비율 1:1 (최대 4만 원)	정부매칭비율 1:1 (최대 5만 원) 보호종료 2년→3년 이내(2020)	정부매칭비율 1:2(최대 10만 원)
주거	지원 대상 주거비 등 사례관리		7개 시도	17개 시도 1,000명	
	주택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³⁾	원룸형 주택 무상임대기간 만 20세 이하까지	중형주택 추가 (전세임대) 역세권 등 공급 확대(매입임대)	공공임대주택 2,000호 공급 무상임대기간 만 22세 이하까지
의료	의료급여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2종 혜택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기간 : 1년 지원규모 : 최대 960만 원	지원기간 : 2년 지원규모 : 최대 1,200만 원

1)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 아동권리보장원. (2023). 자립지원업무매뉴얼 / 관계부처합동. 2021.7.13.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지원강화 방안 / 관계부처합동. 2022.11.17.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
 2) 전담기관이 전국 17개 시도에 정비됨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자립지원전담인력으로 명명함. 기존에 시설마다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아동의 자립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로 업무를 분담함.
 3)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 지원, 청년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희망하우징에 지원대상자로 포함.

우리 사회는 보호받던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정책과 민간 자원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되어 오다, 2019년을 기점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와 민간 지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민간 지원

2019년 이전 시작된 사업의 운영 주체 및 연도별 지원 내용⁴⁾

운영 주체	기부자	사업명	내용	운영기간
중앙아동·청소년 자립통합사업단	삼성전자	생활관, 자립체험관	한국형 자립생활모델	2014~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숲속힐링교실	산림치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4~
	교보교육재단	온드림 청사진	주거, 자기개발, 어학연수, 서포터즈 역량	2017~2019
아동자립지원단	YBM	희망다솜장학사업	대학 등록금(저소득층 가정 포함)	2004~
	스위프트코리아	어학교육프로그램	YBMNET 어학 수강권	2018
	신세계 면세점	정규직 지원사업	스위프트코리아 정규직 채용	2016~2017
	서울경희직업전문학교	정규직 지원사업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정규직 채용	2018
	SKT	디지털디자이너 양성과정	UX 디자이너 교육	2018
한국아동복지협회	에쓰오일	선한울타리 퇴소아동지원사업	정규직 취업 연계, 멘토 연결, 숙소 제공	2017
	현대차증권	S-Oil Dream 장학금	장학금, 기술 자격 교육(연간 1~3억원)	2016~
	포스코1%나눔재단	찾아가는 경제교육	찾아가는 금융 코칭	2018~
서울시아동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	메트라이프재단	자립에 날개달기	자립준비 교육비, 금융 진로 교육	2016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화생명	함께 멀리 기부특약	의료비보장 보험 지원	2017~
홀트아동복지회	현대백화점	파랑새, 꿈꾸는 날갯짓	진로 장학금, 교육비, 정서 지원	2018~
사회투자지원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터무니있는집	주거 지원, 금융 교육	2018~
사회연대은행	한화생명	맘스케어DREAM 비상금 사업	자금 지원, 교육 상담	2018~
	한화생명	청년꿈 지원사업 '청년 비상금'	꿈 지원금, 재무·진로 및 비전 교육	2018~

2019년 이후 시작된 사업의 운영 주체 및 연도별 지원 내용⁵⁾

운영 주체	기부자	사업명	내용	운영기간
사회연대은행	HSBC코리아	청소년비전지원사업 '하이파이브'	자립 지원금, 재무 및 금융코칭	2019
	서민주택금융재단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주택 무이자 대출, 주택 지원	2020~
	아름다운가게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	진로·생활·적금지원금, 멘토링, 취업 컨설팅	2021~
아름다운가게	두나무	두나무 NEXT JOB 자립준비청년 창업지원	창업지원,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 지원	2023~
	아름다운가게	보육원퇴소 자립지원금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교육비 등	2010~
	아모레퍼시픽	아침의 릴레이	긴급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2019~
	아름다운가게	청년인턴십	인턴십	2020~2021
이랜드복지재단	아름다운가게	아동양육시설 대학생 장학지원	생활비, 맞춤형 교육비	2021~2022
	이랜드복지재단	굿럭굿잡 캠페인	면접복 키트 지원	2019
한국아동복지협회	이랜드복지재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2020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자립지원 및 취업연계사업	중공업 분야 기술 교육	2020~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드림텍, 유니퀘스트	드림텍·유니퀘스트이공계열 지원사업	이공계열 지원사업	2022~2024
	KB손해보험	희망의징검다리	세어하우스, 월세 및 자립정착금	2020~2021
홀트아동복지회	KRX국민행복재단	드림나래	교육비, 생활 안정 지원금	2022~
	KB손해보험	런런 챌린지	기술 교육, 컨설팅, 생계비	2021
KSD나눔재단	사회연대은행	네 꿈을 응원해	예체능 분야 멘토링 지원	2021
	한국예탁결제원	마음이음지원사업	복지지원	2022
아이들과미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입주지원금	너 입주자 생활품, 가재도구 지원	2023
	카카오뱅크	모두의자립	금융 교육	2023

4) 아름다운재단. (2019).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토론회.
 5) Ibid. 2023년 기사 검색 요약.



우리의
목소리를
공명하게
하다

선도적이며 실험적인 도전이었던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이제 보편적인 모두의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지원사업과 캠페인사업의 결실을
들어다보았습니다.

* 캠페인 영상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 중. 캠페이너들의 용기가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세상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임팩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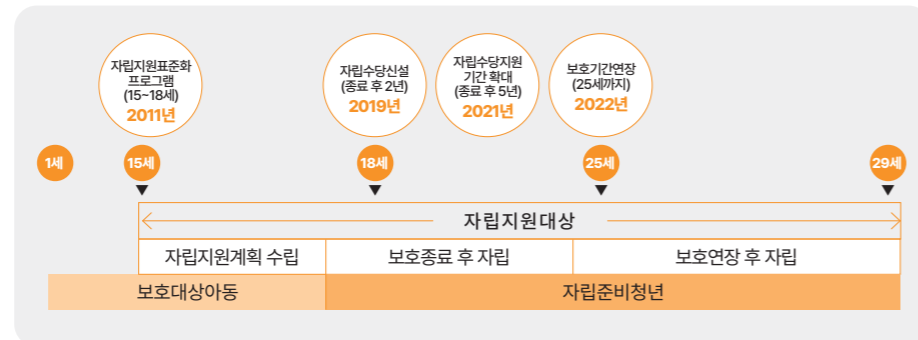
연구 수행 기관

사회복지연구소 **마:실**은 '마음을 나누는 실천'을 고민하고 나누는 실천가이자 연구자의 모임입니다. 마:실에서는 강점관점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과 워크숍, 현장 슈퍼비전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https://blog.naver.com/2015masil)

1. 국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쟁점

Issue 1 자립지원 범위 확대 but, 수의 감소

-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범위는 아동보호체계로 진입한 시기부터 최대 29세까지로 점차 확대되었음.



- 그러나 지난 5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수 역시 감소하기 때문임. 또한, 원가정 복귀를 우선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이제 자립지원에 관한 논의는 양적 확대보다 '질'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자립준비청년의 수(2018~2022)

연도	합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18	2,606	1,065	192	1,349
2019	2,587	992	172	1,423
2020	2,368	827	168	1,373
2021	2,102	726	157	1,219
2022	1,740	717	124	899
보호종료 5년 이내	11,403	4,327	813	6,263

출처: 국회입법처, 2023.²⁾

*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을 단순 산출한 숫자이며, 실제로 자립지원을 받는 청년의 수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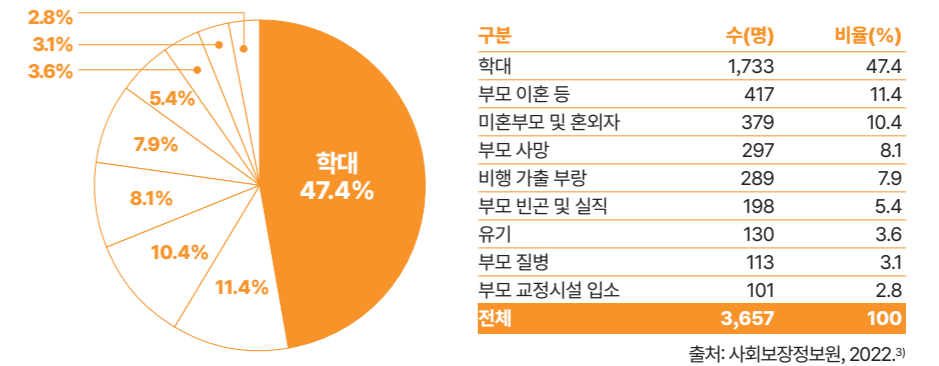
1) 이 글은 아름다운재단 발주로 진행 중인 '자립준비청년 민간지원사업의 현황과 시사점(조소연·김수영·손선옥, 2023)'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인용을 삼가 바람.
2) 국회입법처, (2023).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전담지원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민간과 공공 서비스의 현황과 역동을 분석하여 양자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아름다운재단 사업의 전략을 제안하고자, 1. 국내 사업의 현황과 쟁점 2.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성과 분석 3. 사업 방향 제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Issue 2 가족이 있지만 없는 자립준비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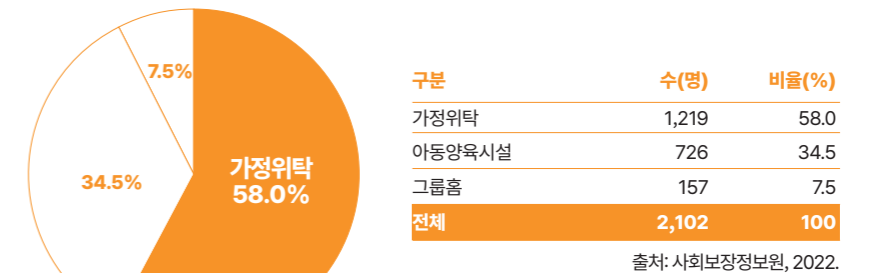
- 보호조치가 발생한 원인을 토대로 유추해 볼 때, 부모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면 자립준비청년의 대부분은 원가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자립준비청년 중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자립 양상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맞는 자립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21년 보호조치아동 발생 원인



- 자립준비청년 중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중에서도 손자녀를 양육하는 대리 가정위탁과 친인척 가정위탁이 대부분을 차지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홀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친인척을 포함한 원가족과 함께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원가정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2021년 보호유형별 자립준비청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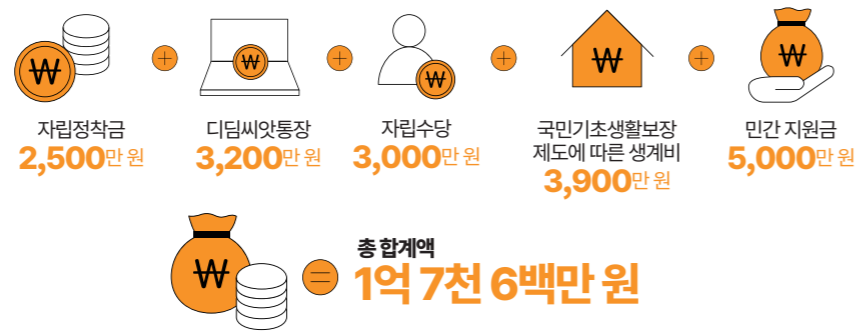
Issue 3 물질적 지원에만 집중

“지금 (디딤씨앗통장 정부매칭 비율이) 1:2가 되고 내년엔 자립수당이 50이 되면, 그것만 3천 그리고 디딤씨앗통장이 5만 원씩, 15만 원씩 1년에 180, 18년이면 그것도 4,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립정착금을 2,500까지 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1억이 넘어가요 (현장전문가C)”⁴⁾

3) 사회보장정보원. (2022).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4) 본 장의 모든 인용문은 2023년 11월 본 연구에서 진행한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의 면접 내용에서 발췌하였음.

-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면 1천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과 보호기간 중 아동 발달지원계획에 적합한 금액을 수령하며,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을 매월 40만 원씩 받을 수 있음 (2024년부터 50만 원으로 인상 예정).⁵⁾
- 민간에서도 다양한 자립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긴급생계비와 장학금지원 등 현금지원 중심임. 민간의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함.

자립준비청년 최대 수령 가능 금액⁶⁾



- ‘자립정보ON’의 게시물을 살펴보면, 생활비, 장학금, 저축 매칭 지원 등의 현금 직접 지원이 가장 많고 청년의 관심(조회수, 댓글 등)도 가장 많았음.
- 물질적 지원이 확대된 것의 부작용 우려. 수급권과 다양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지 않는 청년, 무기력한 청년 문제가 대두하기도 함.

● Issue 4
정보 격차의 문제

“아이들 중에 몇 년 동안 1억원을 지원받는 경우까지도 봤어요. 근데 반면 어떤 아이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중략)... 아무런 의욕 없이 그냥 수당으로 버티는 이런 상황들도 봤고 노숙까지 가는 경우도 나와서(현장전문가C).”

- 최근 공공과 민간의 자립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이용 정도에는 차이가 큼. **자립준비청년의 정보격차 문제와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2023년 자립정보를 안내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립정보ON’을 개설하였지만, 지자체와 민간의 모든 지원을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음. 자립정보 문의 등 도움 필요 시 연락 가능한 자립준비청년 전용 콜센터 운영 및 전문상담사 배치 필요.

5) 아동발달지원계획에는 적합한 금액의 두 배를 추가 적립(최대 10만 원)할 수 있으며, 자립정착금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지원금액에 지자체별 차이가 있음.
6) 지자체별 자립정착금의 최대 금액, 1세부터 18세까지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월별 자립수당 50만 원, 1인가구 생계비 65만 원씩 5년 수령 시 금액, 민간장학금 500만 원씩 2건 수령했을 때 최대금액을 계산한 것임.

● Issue 5
보호체계별, 서비스 유형별 자립지원의 시각지대

“너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어? 너는 어디 있다가 왔어? 너무 부럽다. 나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왜 그때 그 선생님이 그걸 얘기해주지 않았을까?(현장전문가B)”

- 자립지원에 대한 논의는 주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체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등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상당수임. 이들은 가정 밖에서 보호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18.8%, 소년보호시설 퇴소 청년 중 28.2%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음(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 그러나 **체계별 자립지원 수준은 매우 격차가 큰 상황임.**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지원이 나머지 두 체계 청년에게는 지원되지 않으며,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은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2024년부터 지급 예정)이 지원되지만, 2년간 쉼터에 거주하고, 마지막 6개월은 한 시설에서 생활해야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도 짧음.⁷⁾ 소년원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음.
-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서비스 유형에 따른 편차가 존재함.**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만 배치되어 있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사·도의 모든 위탁가정을 담당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정책이 적용되지 않음.
- **모든 아동은 서비스를 차이 없이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2021년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발의된 바 있음.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란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 Issue 6
보호종료 후 단기간만 집중된 Second Chance 가 없는 지원⁸⁾

“자립이라는 것이 어느날 푹딱 절대로 자립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호 중일 때 제대로 준비하고 내 손에 있을 때 이제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현장전문가C).”

“자립을 돕는다 그러니까 한 청소년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런 것들은 한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 생각이 들어요(현장전문가D).”

- 자립지원의 내용은 대부분 보호종료 후에 이루어지고, 보호기간 중 지원하는 내용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에 따른 자립계획 수립과 생활, 진로 교육이 유일함.
-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기간도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특수육구가 있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청년은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음.

“발달장애, 지적장애, 경계성지적기능장애 등은 시설에서 적절히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현장전문가A).”

7)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에 대해 매월 40만 원씩 최대 36개월까지 지급.
8) Issue6부터 논의하는 내용은 타 체계의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준비청년에 한정한 내용임.

● Issue 7
어려움을 드러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쉽게 성매매에서 돈 벌고 그래서, 자립을 돕고 어떤 것들을 해준다 해도 거기에 또 금방 빠지고 거의 유혹에 넘어가고(현장전문가D).”

-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생활, 자금관리, 범죄노출 등의 문제가 증가하지만 이에 맞춘 상담이나 컨설팅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보호기간부터 개입이 시작되어 보호종료 후까지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사실 그들이 살아온 기간 동안 계속해 온 일이거든요(현장전문가B).”

- 민간의 지원은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할 뿐 아니라, 신청 과정에서도 자기 어려움을 더 드러낼수록 지원받기 쉬우며, 공공의 서비스조차 자신이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연결되는 서비스가 많음. **청년의 과거보다는 미래와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보호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논의와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보호의 사례는 많지 않으며, 이는 성년이 되어 시설을 벗어나 독립된 공간에서 살기 원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있어서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성인으로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보장하는 차원의 ‘청년 친화적’ 접근책을 마련해야 함.**

2021년 자립준비청년 연장종료 현황 (단위: 명, %)

종료사유	전체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만기퇴소	863(41.1)	271(22.2)	480(66.1)	112(71.3)
연장종료	1,239(58.9)	948(77.8)	246(33.9)	45(28.7)
전체	2,102(100)	1,219(100)	726(100)	157(100)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2022.

“퇴소한 다음에 아이가 관리 안돼서 찾아보니까 결국은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물론 아동수당 주고 자립정착금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 아동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거를 누군가가 조금 체크하는(현장전문가A).”

“아이들은 끊임없이 관계가 잘되지 않으면 자립할 때 다 무너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략) 아이들이 삶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거를 잘 가르쳐야 되고 그것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줘야(현장전문가D).”

-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자립 후 지속해서 연락하며 문제 발생 시 의논할 상대임. 이미 사회적 자원과 관계망이 부족한 경우, 자립 후 최소한의 관계마저 단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립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촘촘한 관계망의 구축과 유지가 필요함.**

● Issue 8
사회적 관계의 부재와 단절

2.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성과 분석

● Impact 1
선도적 자립지원 모델의 견인

- 아름다운재단은 자립 지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200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퇴소 후 자립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음.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당시 아동복지분야에서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고 가정외보호아동 문제에 거의 초점을 두지 않았음. 이러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시작된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지원사업은 선도적이며 실험적인 도전이었으며, 다른 민간기관과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를 견인하는 일이 되었음.

공공과 민간의 주요 자립지원사업

연도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교보교육재단 희망다솜사업	현대차 정몽구재단 온드림사업	아름다운 가게 청년비전 프로젝트 플랜V	두나무 NEXT JOB
1993	자립지원 센터 운영				
2001					
2004					
2007	디딤씨앗, 자립전담 요원배치				
2011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2012	자립지원 법적 근거				
2014					
2016					
2019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2021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방안
2023					자립수당 40만 원 인상

● 공공

-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대학생의 학업유지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가 있었음.

“여유가 생겼죠 ‘아 한숨 났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계속 일과 학교를 반복하니깐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오면 엄마랑 자주 싸웠어요. 교육비 지원을 받고 나서 한숨 놓게 되니까 부딪치는 일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직장에서도 잘할 자신이 생겼어요.”⁹⁾

“돈 모으는 게 쉽진 않았어요. 책 한 권 사는 것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강의도 1년짜리는 사본 적 없고요. 그런데 교육비 지원을 받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책을 마음껏 살 수 있구나, 생각하니 정말 좋더라고요.”¹⁰⁾

● Impact 2
지원 연령의 확대와
선정 기준의 융통성

-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은 초창기부터 보호종료 후 자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법제도가 개선되기 전부터 청년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하였음.
-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의 대상을 선발할 때도 현재의 성적보다는 사람(가능성)을 보는 선발제도를 도입하고, 고통을 드러내기보다 희망을 발굴하려는 관점과 태도로 접근하였음. 서류심사와 면접 등 선발 과정에서도 성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철학이 드러났으며, 이는 타 지원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볼 수 있음.¹¹⁾

9)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5). 2015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활동집.
10)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7). 2017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활동집.
11) 김선숙·조소연·이정애·권지성·안재진·정선욱. (2020).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경제적 지원과 사회자본의 결합효과. 아동권리보장원·아름다운재단.

Impact 3
문턱을 낮추고 대상을 확대함

“아름다운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을 안 봐요. 그래서 모집기간 동안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저는 성적이 안 되는데 지원해도 되냐’고요. 사실 시설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아예 지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주로 봐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선발하는 거죠.”¹²⁾

“장학금을 받아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원해야 할 거 같은 한데, 반대로 되게 허술하게 쓴 서류를 보면 ‘이 사람은 맨날 떨어지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허술하게 쓴 서류라고 해도 무슨 말을 쓰고 싶었는지 생각하면서 두 번, 세 번 다시 읽어요. 서류내용은 부실해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¹³⁾

- 아름다운재단은 초기 대학생 중심이었던 장학금과 각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비진학 및 취업준비 청년으로 확대하였음. 이는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이 퇴소 후 생계를 위해 진학보다는 취업을 준비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보호기간 중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로선택의 폭을 확장시켜주고자 하였음.
- 법적으로 규정된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당시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시설 중도 퇴소자’와 ‘청소년복지시설(쉼터) 퇴소자’도 포함하여 사각지대 청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음.

Impact 4
사회적 자원에 초점을 맞춘 지원

- 아름다운재단은 일찍부터 재단 사업이 물질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자본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사업을 모색하였음. 이에 따라 대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참여자 팀별 모임, 네트워크 프로그램, 1:1 모니터링 등 참여 청년 간 소통과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병행해 왔음. 이는 서로를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창구로도 활용되었음.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던 것. 제 주변에는 자립에 실패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을 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난 것이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¹⁴⁾

“그동안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자신만 겪는 슬픔과 아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더는 외딴섬이 아니었습니다. 장학생들과의 소통과 공감은 이내 위로와 격려로 승화하였기 때문입니다.”¹⁵⁾

Impact 5
자립 역량의 강화

- 자립준비청년 선후배가 만나 모임과 활동을 함께하는 ‘작은변화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청년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음. 구체적으로 자립수당과 주거지원사업,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학비·생활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와 일상생활의 사소한 지침과 팁들을 자발적으로 공유하였음.

12)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8). 2018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활동집.
13) Ibid.
14)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2017), op.cit.
15) Ibid.

Impact 6
다양한 자원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 자립 보장

- 작은변화 프로젝트는 각 팀별로 스스로 선정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음. 활동의 결과가 지식과 기술 습득이나 취업으로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활동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도 했음.¹⁶⁾
-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경우에도 계획과 결과보고를 하게 하였는데, 청년들은 운용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었음.¹⁷⁾

Impact 7
청년 권리의 확장으로 관점 전환

-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 유지를 돕는 생활 보조를 위한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였음. 또한, 교통비와 독서실비 등 학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 생활 및 학업 수행의 안정을 도모하였음.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 활동, 취미 및 문화 활동도 지원하였는데, 모든 과정은 청년의 관심사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며 이루어짐. 이는 생존권과 보호권 중심의 지원에서 발달권과 참여권으로 청년의 권리를 확장하여 접근한 것이었으며, 기본적 생계유지만을 강조하던 기존 사회서비스의 시각을 문화와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으로 전환한 시도였음.

Impact 8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하는 이용자 중심 실천

-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지원은 당사자의 주체성을 중요시하면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음. 이를 위해 당사자의 선호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도 청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지지하였음.
- 대상의 선정과정에서도 성적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듯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였음.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지지하고 응원함.

Impact 9
나눔의 선순환

- 아름다운재단의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은 ‘도움받던 사람에서 도움주는 사람으로’의 전환을 경험함. 이들은 지원이 끝난 후에도 금전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신의 자립 노하우 나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음.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참여자가 생각하는 활동의 의미

16) 김선숙 외, op.cit.
17) Ibid.

3.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방향 제안

“판을 깨는 그런 작업들을 좀 아름다운재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현장전문가B).”

Restart 1 남이 하지 않은 일, 남이 가지 않은 길

- 보호체계별로, 보호유형별로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 장애인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하는 일은 다르지 않으며, 모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메꾸는 역할임.
- 민간의 역할은 어쩌면 ‘계속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장의 이슈를 발굴하고 가장 빠르게 개입하는 것, 그리고 문제 제기를 통해 공론화하는 일**은 아름다운재단의 역할이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임.

Restart 2 가족, 타인과 함께하는 자립

-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기보다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함. 그리고 이러한 배움은 보호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결국 사람을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 특히, 연결되고 유지되어야 할 사람은 가족부터 시작하여 친구, 동료, 이웃, 전문가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임. 관계를 끊어내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고립’이 아니라, 의논할 어른, 공감할 친구, 활동할 동료와 ‘함께하는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고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Family Conference와 Epic Ohana의 Youth Circle 프로그램의 강점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제안함.** Family Conference는 원가정을 포함한 서비스제공자 등의 지지체계가 모여 아동의 보호와 가족관계의 유지와 복귀 등을 논의하는 것이며, Youth Circle은 하와이 보호관찰청소년의 독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다양한 지지체계를 확장하고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둬¹⁸⁾

Restart 3 경계를 넘나들기

- 현금, 현물, 서비스의 혼용, 시간과 공간의 넘나들뿐 아니라, 지원 주체의 경계를 깨는 작업이 필요함. 공공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시도하는 차원, 혹은 역할 나누기를 넘어서서 공공의 정보력과 권한, 민간의 자원과 융통성을 모두 활용하는 ‘완전한 파트너십’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논의하는 공공과 민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이러한 노력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함.** 이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중복되고 누락된 영역의 확인과 개선, 역할 분담, 현안에 대한 공동 이슈 파이팅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임.

18) Epic Ohana 홈페이지. <https://www.epicohana.org/ohana-connections>



“쉬는 법을 몰랐어요.
지원사업을 참여하면서 쉽지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온전히 쉴 수 있어야 행복하겠단,
그래야 지치지 않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참여자 소감 중

“청년들의 실패할 권리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김수진, 김지수, 정필현 심사위원

● 허술하게 쓴 신청서라도 여러 번 읽는 이유는...

Q. 오랫동안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심사에 참여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필현 심사위원(이하 ‘정필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지원사업 신청자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심사한다라는 느낌보다 이들을 위해 뭘 해야 할지를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지수 심사위원(이하 ‘김지수’) 여러 해 심사를 했는데, 예전에 만났던 신청자들은 더 많이 우울해했어요. 요즘에는 면접 보면서 웃고 나가기도 하죠. 사실 지원사업 신청자는 대부분 자신의 사정이 어려워야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심사가 ‘어려움을 증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질문을 해요. 면접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환하게 웃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하곤 해요.

Q.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지수 저도 늘 딜레마에 빠져요. 교육비를 받아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원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반대로 되게 허술하게 쓴 서류를 보면 ‘이 사람은 맨날 떨어지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허술하게 쓴 서류라고 해도 무슨 말을 쓰고 싶었는지 생각하면서 두 번 세 번 다시 읽어요. 서류 내용은 부실해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정필현 여러 장에 많은 내용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도 막상 면접을 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할 얘기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서류는 잘 못 썼어도 면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는 면접자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Q.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만의 장점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김지수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라이프스타일과 생각, 욕구가 다양해요. 아름다운재단은 이런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정필현 아름다운재단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당사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도 남다르고요.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김수진 아름다운재단은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많이 존중한다고 봐요.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청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조금만 실수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심리적 단절감도 커요.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시행착오 과정에서도 계속 응원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그래서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모두들 행복하기 위해 살지만 사람마다 행복한 삶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그걸 생각할 기회가 없는데 지원을 받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아니 그렇지 못하더라도 꼭 생각해 보면 좋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재단의 가장 큰 차별성은 심사과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의 성적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는 절차, 고통을 드러내기보다는 희망을 발굴하려는 태도가 재단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심사과정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 여정을 함께하는 아름다운재단 심사위원 3명을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겠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존엄성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도, 인간의 존엄을 사 버릴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여기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요구를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책도 바뀌고, 이런 지원사업이 사라져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없을 자신의 독특한 삶을 향해 어렵더라도 꼭 나아가시길 바라요.

정필현 오늘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지금 실수하고, 실패하여 좌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희망을 가지면 미래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걸,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수진 사실 저도 몇 번 실패나 좌절을 겪고 나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연 될까’ 생각했어요. 선뜻 용기가 안 나고 포기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반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안 돼?” “왜 꼭 이래야 하지?”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자기자신이나 처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사회에 대해 그렇게 계속 반문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돕겠지만, 그러려면 도와달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잡아 일으킬 수 있도록 말이죠.

글. 박효원 | 사진. 이현경



왼쪽부터 정필현, 김지수, 김수진 심사위원

●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열여덟 어른' 캠페인 임팩트

연구 수행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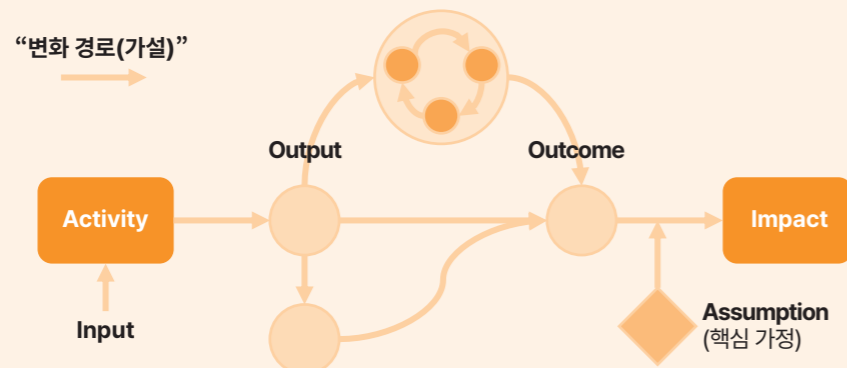
(주)트리플라잇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직이 임팩트 관점의 전략을 내재화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임팩트 측정·관리·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www.triplelight.co / impact@triplelight.co)

지난 2019년, 아름다운재단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캠페이너'로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3개 시즌 동안 캠페이너 13명의 목소리가 다른 자립준비청년들과 대중,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특정 목표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심리적 지지와 안정감을 토대로 캠페이너들이 사업 활동과 그 안에 담을 메시지를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직면하고 대중의 지지와 격려를 경험한 캠페이너들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면서, 자립준비청년 관련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통해 캠페이너,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대중에게 나타난 변화를 확인하고자 임팩트 전략·측정 전문기관인 트리플라잇과 함께 임팩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여도가 높고 유효한 변화를 식별하여, 자원 재분배와 사업 전략 방향성을 진단 및 평가하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팩트 분석 연구는 개입과 성과의 인과성에 초점을 두는 변화이론 'Theory of Change, ToC'을 활용하여, 변화의 과정과 조건을 정리하고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변화이론은 일반적으로 Impact(임팩트), Outcome(장·단기 성과), Output(결과), Activity(활동·사업), Input(자원 투입) 등 5개 요소로 구성됩니다. 임팩트는 변화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Outcome은 임팩트가 창출되기 위한 전제조건(Pre-condition)을 설명합니다. 때로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가정(Assumption)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열여덟 어른' 캠페인이 미친 임팩트와 그 과정을 FGI,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의 증거기반(Evidence-based) 방법론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캠페이너의 변화, 자립준비청년의 변화, 그리고 사회 인식 및 구조의 변화가 공명하는 과정을 논리모델과 변화이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석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했습니다.

① 이해관계자 인터뷰

연구의 핵심인 변화이론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핵심 이해관계자인 실무자와 캠페이너들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차 FGI	- 사업 기획 배경 및 의도 - 사업 히스토리 및 변곡점	실무자 4명
2차 FGI	- 사업 전/후 변화 - 캠페인의 변화 기여도	캠페이너 4명
3차 FGI	- 캠페인의 강점 및 차별점	캠페이너 4명

② 변화이론 구성

내부 현황 진단, FGI를 통해 식별할 수 있었던 변화들을 토대로 가설단계의 변화이론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화의 경로는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변화이론에 표현된 변화들이 어떻게(How), 얼마나(How Much) 나타나고 있는지, 현 수준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수립해 분석과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③ 데이터 수집 및 설문조사

수립한 지표의 측정을 위해 재단 내부 데이터, 미디어 빅데이터,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활용했습니다.

재단 내부 데이터	사업 현황, 콘텐츠 성과, 모금 성과 등 데이터 25 종
미디어 빅데이터	뉴스, SNS, 검색량, 댓글 데이터 등 미디어 데이터 약 60만 건
설문조사	캠페이너 12명 대상 설문조사 약 100개 문항 진행

④ 임팩트 진단 및 분석

⑤ 논리모델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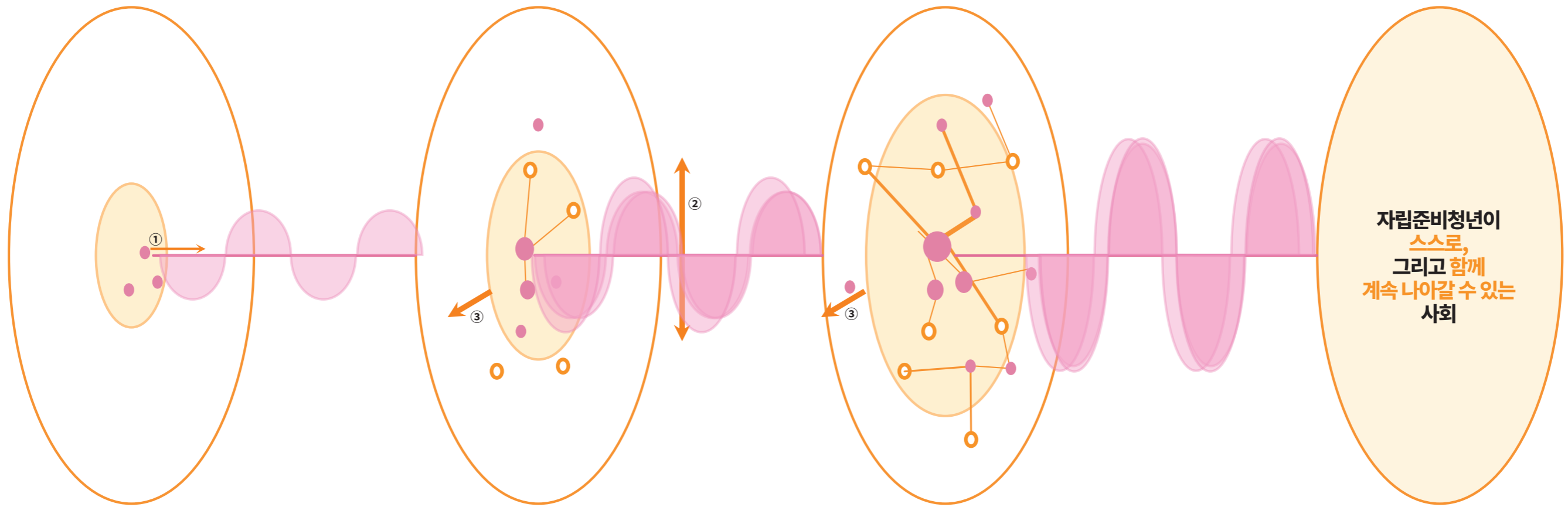
분석을 통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변화와, 캠페이너들이 평가한 사업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핵심 변화를 분별하여 변화이론의 축약본인 논리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열여덟 어른’ 캠페인 임팩트 내러티브 :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가 **공명**하여 사회에 울리게 하다

공명: 고유 진동수가 같은 음이 중첩되어 진폭이 커지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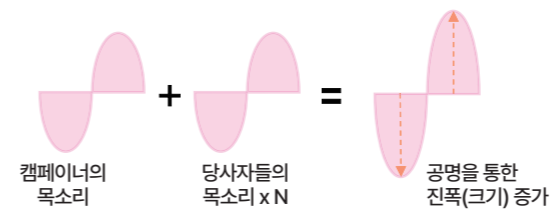


① 캠페이너의 변화 - ‘공명의 첫 음’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앞장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캠페이너로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재단이 지원하는 당사자 프로젝트를 통해 ‘**감추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사회에 당사자의 시각과 문제 의식을 담은 ‘**첫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② 자립준비청년들의 변화 - ‘목소리들의 공명’

먼저 용기를 낸 캠페이너들의 목소리에 대중들의 공감과 지지가 이어졌고, 이는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이 **용기 내어 자신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공명하여 점점 더 큰 소리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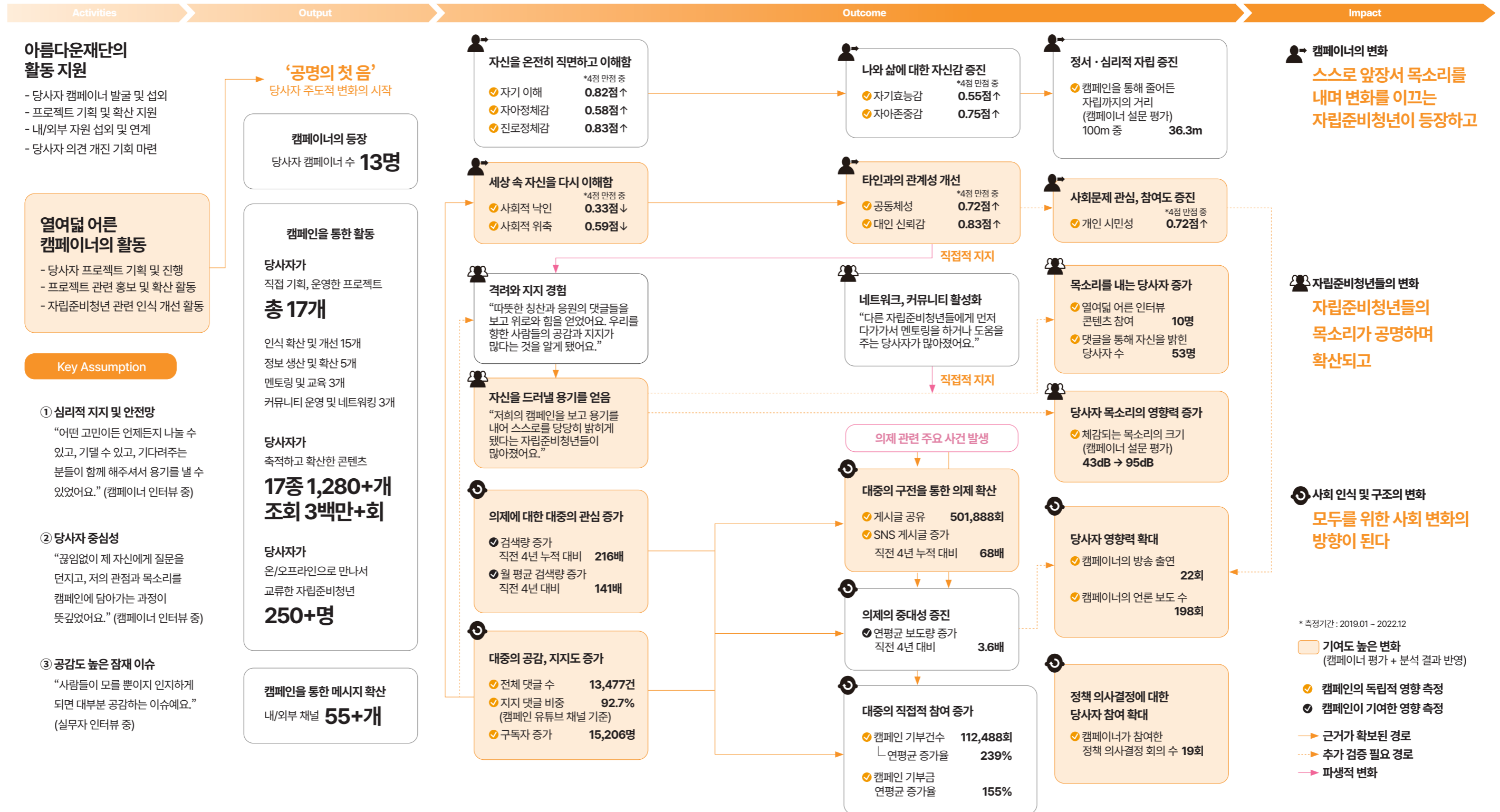


③ 사회의 변화 - ‘인식의 전환, 장벽의 균열’

공명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는 사회에 큰 울림을 주어 대중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캠페이너들의 목소리에 사회가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자 **변화의 핵심 주체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논리모델

Goal :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통의 청년으로서 스스로, 또 함께 계속 나아가는 사회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주요 지표 분석 결과:

편견의 시선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성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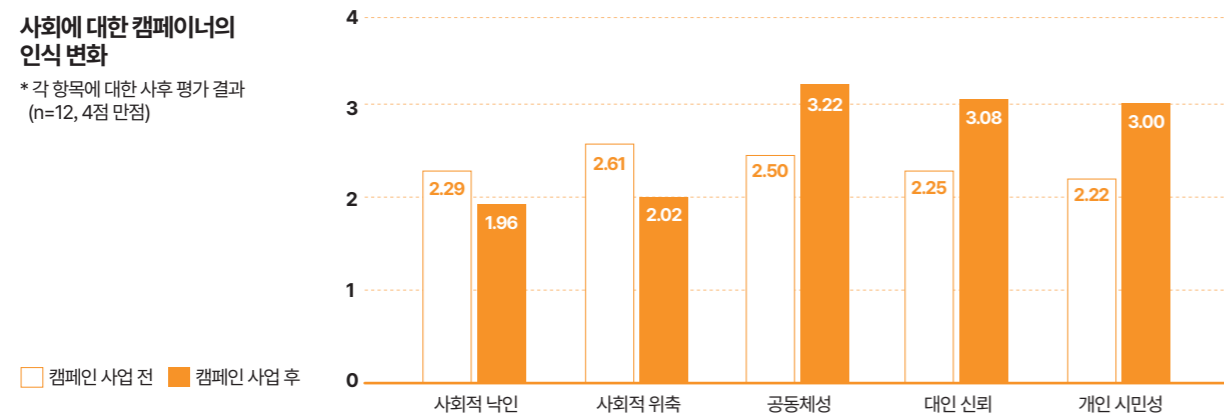
자립준비청년들은 차별과 편견을 피하기 위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했습니다. 자신을 ‘문제 있는 존재’, ‘부족한 사람’으로 여겼다 말합니다. 하지만 캠페인을 통해 자신에 대해 온전히 직면하고, 대중의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면서, 사회를 향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캠페이너들은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경험이 많아서 있는 그대로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응원한다’, ‘멋있다’며 격려해 주는 댓글들을 보고 안도감이 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 손자영 캠페이너

“자립준비청년 모두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문제들을 더 고민하게 됐어요. 나 자신에게만 머물던 시야가 ‘모두의 시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진영 캠페이너

사회에 대한 캠페이너의 인식 변화

* 각 항목에 대한 사후 평가 결과 (n=12, 4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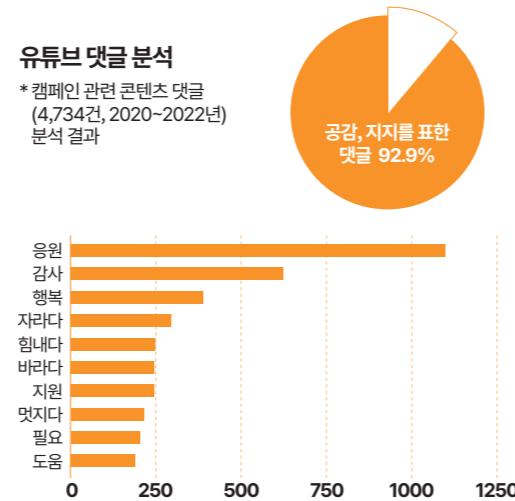
항목별 대표 문항

* 타당도, 신뢰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변화량이 큰 문항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2.25 → 1.58
‘타인들에게 내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	2.58 → 1.83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2.58 → 3.25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2.25 → 3.08
‘사회적 이슈/문제를 토론할 때 참여한다’	1.67 → 2.58

유튜브 댓글 분석

* 캠페인 관련 콘텐츠 댓글 (4,734건, 2020~2022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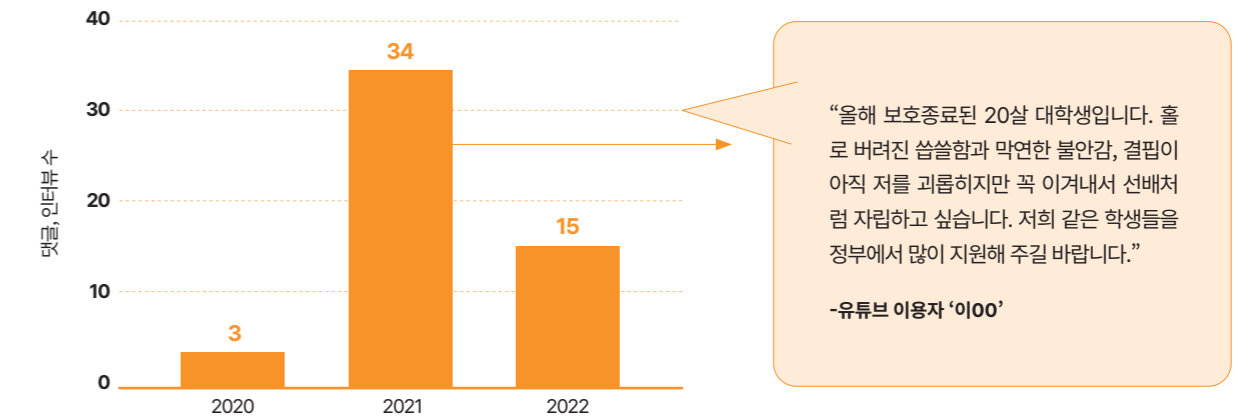


캠페이너와 자립준비청년들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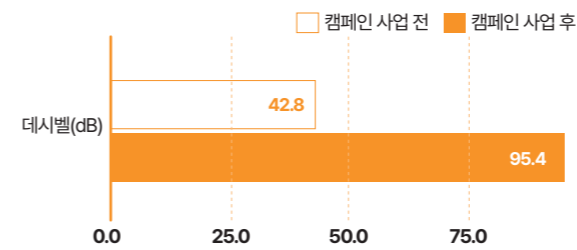
공명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퍼뜨린 울림

캠페이너들이 낸 목소리와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은, 다른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회에 울림을 주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많아졌고, 서로 공명하며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이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당사자들 * 온라인, 오프라인 총합



캠페이너들이 체감한 당사자 목소리 크기 * (n=12,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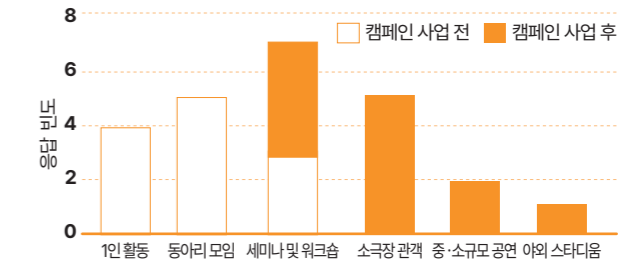
42.8dB
*일상 대화 수준



95.4dB
*1m 앞 자동차 경적음



캠페이너들이 체감한 당사자 목소리 규모 * (n=12)



동아리 모임
*2~30명 수준



소극장 관객
*100~300명 수준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주요 지표 측정 결과:

당사자의 목소리로 만든 사회의 인식 변화

캠페이너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울려 퍼지면서,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영 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캠페이너들의 이야기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216배

자립준비청년 관련
검색량 증가

캠페인 전(2016~2019.02) 대비
캠페인 후(2019.02~2022)
누적 검색량

141배

자립준비청년 관련
검색량 밀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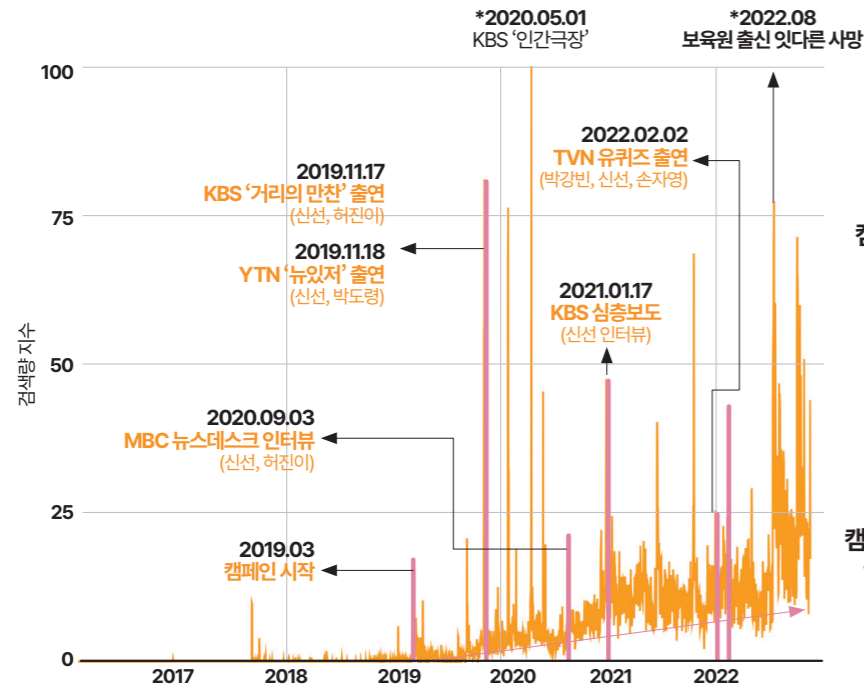
캠페인 전(2016~2019.02) 대비
캠페인 후(2019.02~2022)
월평균 검색량

약 20%

검색 트렌드에 대한
캠페인 영향력

검색량 기준 상위 30일 중
캠페인 관련 이슈 트렌드 비중

자립준비청년 관련 검색량 트렌드 * 네이버 검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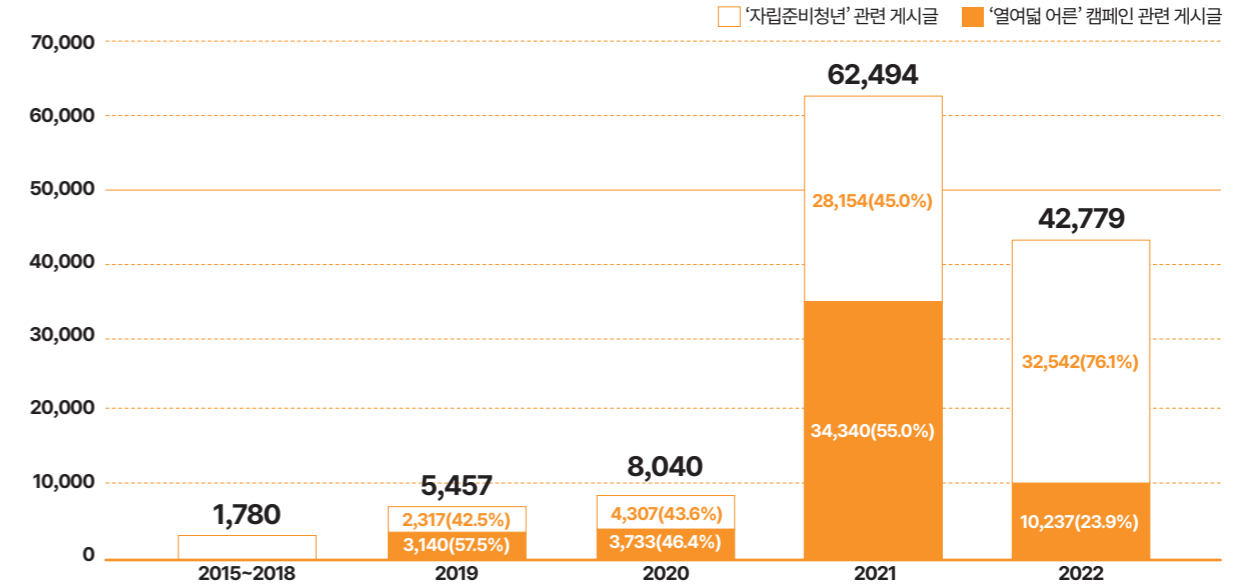
22회
캠페이너의 방송
섭외 및 출연

198회
캠페이너가 등장한
주요 언론 보도

- 2019.11.17 KBS '거리의 만찬' - 신선, 허진아
- 2019.12.30 KBS 아침마당 - 신선
- 2020.09.02 MBC 뉴스데스크 - 신선, 허진아
- 2022.02.02 TVN '유퀴즈 출연 (박강빈, 신선, 손자영)
- 2022.02.02 TVN '유퀴즈 온더 블럭' - 박강빈, 신선, 손자영
- 2019.10.19 한겨레, '나를 키운 것은 열여덟의 공포였다'
- 2019.11.11 한겨레21, 신선 캠페이너 당사자 인터뷰
- 2020.09.21 경향신문, '고아의 공식' 인터랙티브 뉴스

사회의 변화

자립준비청년 관련 SNS 게시글 *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자립준비청년 관련 SNS 게시글 키워드 TOP 10 * 트위터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거리의만찬	미디어	기부금	보호종료아동
재방송	기획기사	사회생활	지원
시신	보호종료아동	보이스피싱	김호중
회장	기부	기부	나눔
보호종료아동	지원금	보호종료아동	나이
주택	보육	눈물	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	관심	열여덟어른	자립준비청년
보호시설	캠페인	연령	기억
임대주택	준비	아침	생명
방	열여덟어른	아름다운재단	기부

SNS 상 자립준비청년 관련 게시글은 2019년 '거리의 만찬', 2020년 '손자영 캠페인'의 미디어 인식 개선 기획 기사와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연예인 기부, 정책 관련 게시글이 급증하며 트렌드를 주도했습니다.

스스로, 함께 계속 나아가기 위해

캠페이너들은 '스스로, 함께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자립이라 말했습니다. 캠페이너들은 자립을 위한 사회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대중들이 당사자의 목소리에 주목하기 시작하자,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도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9회
정책 결정 및
논의 참여

- 2020.09.23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 2021.03.11 국무총리 목요대화
- 2022.08~09 용혜인, 이원욱 의원 간담회
- 간담회 제안 내용 5개 주요 추진과제로 채택
- 2021.07.13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대책 - 6대 추진과제 마련

캠페인이 끝난 이후에도 캠페이너들은 후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통의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선, 손자영 캠페이너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의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단에 소속되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대표로 전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관련 당사자 그룹을 계획 중입니다.

“느리더라도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경험했죠”

‘열여덟 어른’ 캠페인 손자영, 신선, 허진이 캠페이너

● 책임감, 불편함, 안타까움 그리고 용기

Q. 열여덟 어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신선 캠페이너(이하 신선) 재단은 불쌍한 모습이 아닌 청년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할 거라고 하면서 제게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셨는데,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냈죠.

손자영 캠페이너(이하 손자영) 살면서 겪었던 차별과 편견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허진이 캠페이너(이하 허진이) 저는 한 아동복지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현장은 나가지도 않고 매뉴얼대로만 일하는 데 회의감을 느끼던 중이었어요. ‘재밌겠다, 일단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좋은 기회 덕분에 질 좋은 자립생활을 해왔는데, 갖고 있던 미안함과 책임감도 이번에 잘 풀리겠다 싶었어요.

Q. 덕분에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을 같이 하고 있어요. 활동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경험을 꼽는다면요?

손자영 제가 캠페인 오픈 직전에 걱정되어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재단 팀장님은 혼내기보다 오히려 제가 괜찮은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덕분에 캠페이너 활동에 좀 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허진이 프로젝트 할 때 여러 보육원을 다녔는데 재단 분들이 지원해주시고, 강연하는 당사자 친구들 기분까지 살피주셨어요. 그런 노고가 감동이었죠. 그리고 저의 개성을 알아봐주시고, 프로젝트의 모든 순간에 제 자신을 담을 수 있게 재단에서 지원해주셨어요.

신선 저는 정책이 바뀌고 좋아지게 된 시작이 ‘열여덟 어른 캠페인’이라 생각해서 좋아요. 더 좋은 것은 밖으로 나오려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본인이 ‘자립준비청년’임을 이야기해도 부정적이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 변화야말로 우리 캠페인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Q. 활동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허진이 제 친구는 제가 활동하는 것을 보고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지금까지 기죽어서 자립준비청년임을 고백하지 못했는지 억울하다’ 하더군요.

손자영 보호아동 대상 교육 때 <열여덟 어른TV>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출연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캠페인의 긍정적 영향을 느꼈죠.

Q. 당사자이자 캠페이너로서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자영 가장 큰 차별점은 우리를 불쌍하게 그리지 않은 점이죠. 우리 또한 보통의 청춘이고 불쌍하게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다른 단체들의 광고에서는 불쌍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요. 우리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차별점은 진심으로 고민하는 단체라는 것.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공부하는 곳이 또 있을까 생각해요.

신선 저도 동의해요. 강연 가서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 이런 동정적인 시선을 다들 불편해 해요. 웃으면서도 충분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점이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아요.

허진이 저는 ‘허진이’를 자립준비청년으로만 소비하지 않고 ‘허진이’라는 사람으로, 당사자 정체성뿐 아니라 나의 재능이나 센스를 펼칠 수 있게 수용해 주는 점이 재단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해요.

● 불쌍한 청춘이 아닌 보통의 청춘은 안 될까요?

‘보육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이들은 많았어도, 이들이 시설을 떠난 후 겪는 삶의 분투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습니다. 당사자 캠페이너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손자영, 신선, 허진이 캠페이너를 만났습니다.

손자영 아, 또 있다. 일을 섬세하게 하는 것. 당사자 관점과 의견을 듣고, 배려하고, 우선하는 일의 방식은 재단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 문제 해결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선구자로서의 아름다운재단을 기대

Q. 아름다운재단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면?

신선 며칠 전 희망가게 20주년 행사를 봤는데, 한부모여성가장들이 자립할 수 있게 꾸준히 지원해 왔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꾸준히 지원해서 나중에 함께 이룬 것들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돼주면 좋겠어요.

손자영 앞으로 우리가 끌어내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는 거요. 퇴소한 친구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위탁이나, 재단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 같은 거요. 아름다운재단이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바람이라기보다 기대되는 부분이지요.

Q. 마지막으로 세 분의 다음 꿈은 무엇인가요?

신선 개인 신선으로의 가능성도 확인하고 싶고, 자립준비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서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하도록 돕는 일도 하고 싶어요.

손자영 사실 ‘세상이 변한다’는 말에 의심이 많았어요. 캠페이너 활동하면서 ‘느리지만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구나’를 느꼈죠. 그래서 비영리 활동을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모와 원가정의 한계 같은 아직 손질이 닿지 않아 바뀌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한 꿈을 꾸고 있어요.

허진이 재단을 통해 일을 하는 방법과, 일을 할 때 나라의 사람이 돋보이는 방법을 배웠어요. 앞으로 배운 것을 잊지 않으면서 일의 형태나 내용은 고민하려고요. 또 자립준비청년으로 ‘가정을 잘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게 제 가정을 잘 가꾸는 것도 꿈이에요.

신선 마지막으로 캠페인 하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당사자 인터뷰나 펀딩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있는데, 기부자님들 덕분에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글·사진 김아란



왼쪽부터 신선, 허진이, 손자영 캠페이너

더 큰 공명을 위해 나아가다

해마다 수천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필요한 건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시대에 발맞춘 실질적 지원과 분명한 변화입니다.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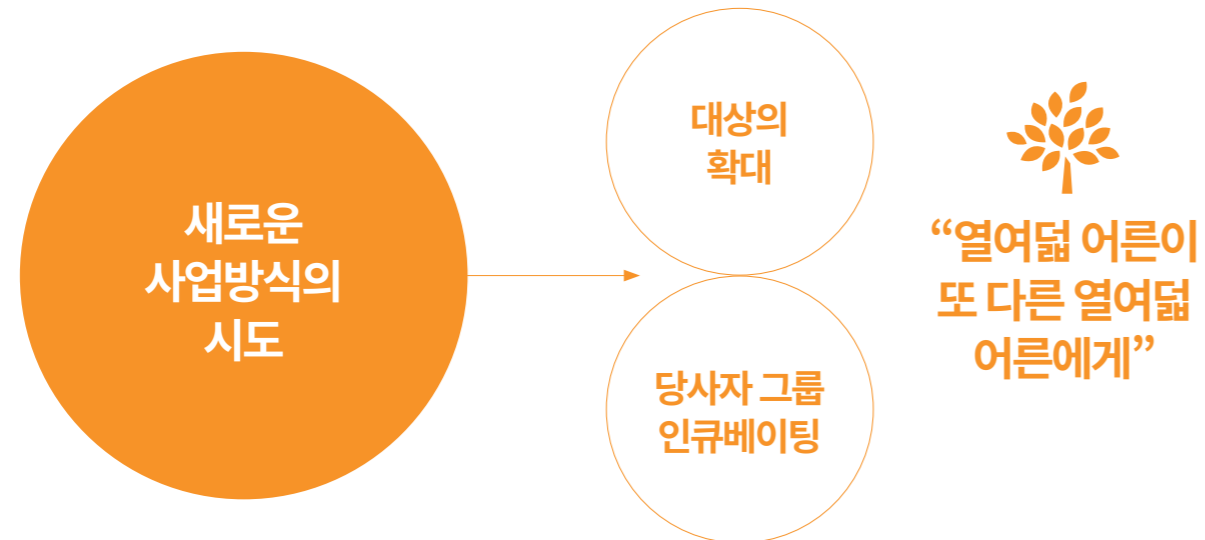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은 참여자간의 교류를 통해 관계를 확장하고 정서적인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사업 향후 방향

환경분석 및 시사점

환경	전망	시사점
정부, 자립준비청년 연이은 지원 대책 발표	사회적 관심 증대 동시에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 존재	▶ 현금성 지원,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민간 지원과 노력 필요 (관계망, 네트워크의 부족, 편견과 인식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증대	정부, 민간, 기업 각층의 지원 집중 유사 사업, 중복지원 사례 반복	▶ 정부, 민간 지원 확대에 따라 재단 사업 경쟁력, 차별성 확보 필요 → 사각지대 발굴, 공론화 등 재단 강점 기반 활동 지속 및 새로운 시도 → 사업 필요로 추진 시기 앞당겨 조정
여전한 사각지대 존재	자립 후 25세 이상, 중도퇴소, 가정외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사각지대의 부각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의 유형에 제한되지 않는 지원 필요	▶ ‘실질적 자립준비청년’ 대상 확대 및 지원 필요
당사자 목소리 중요성	정책, 지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 대두 당사자 입장의 중요성 강화	▶ 건강한 대변자 발굴 및 당사자 성장 지원 필요 ▶ 재단 전문성과 진정성 바탕 활동 지속 필요 → 아름다운재단의 가치가 담긴 목소리 강화 및 확산

자립준비청년사업 개편 방향



자립준비청년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첫 시작이자, 가장 오래된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정부 정책 변화를 견인하였습니다. 이런 관심은 기부로 이어져 지원 대상 확대 및 사업 다각화의 바탕이 되었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재단은 다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보다 다가서기 위한 아름다운재단의 앞으로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전략 과제	현황 및 문제점	개편 방향	세부 내용
사각지대 지원	전달체계 및 지원정책 분절로 원가정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청소년/청년 발생	지원 대상 확대	✓ 청소년복지시설, 미인가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청년 대상 4개 지원사업 규모 확대 - 쉼터, 노숙위기청년, 청소년부모, 보호대상아동 등
지원사업 개편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관심↑ 그러나 유사한 사업들의 한계	아름다운재단 가치의 내재화 및 확산	✓ 아름다운재단 가치가 담긴 방식의 지속 - 지원사업의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 사업의 핵심은 ‘사람’이 되도록 - 연령, 학력 등의 기준이 아닌, 가능성이 기준이 되도록
당사자네트워크 및 조직화 지원	당사자 관점의 부족 건강한 관점의 대변자 필요	당사자 그룹 조직화	✓ 청년을 돕는 이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네트워킹 강화 ✓ 지원사업뿐 아니라 활동가, 단체를 지원해주는 방식 ✓ 배분 사업 방식을 뛰어넘는 연대 방식
	당사자 인식 개선	인식 개선 활동	✓ 당사자 그룹 조직화 구체화 및 실행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서포트 실행
			✓ 자립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담론 확산 ✓ 수혜자, 대상자를 넘어 주체자로서 인식 개선 활동

“2001년부터 시작되었던 아름다운재단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여 년간 끊이지 않았던 묵묵함으로, 도움의 대상이었던 이들을 당당한 주체자로 바라봤던 시선으로, 새로운 과제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으로, 더 큰 공명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해온
아름다운
마음,
공명하다

선뜻 따뜻한 관심과 손길로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전하는 강한 울림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음을,
그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겠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1호 기금의 주인공인故 김군자 할머니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협력단체 및 기부자

공익은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할 때 실현된다 믿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협력단체,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신 기부자님이 있기에
아름다운재단은 오늘도 변화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력단체



(사)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_ 대학생교육지원사업
고립위기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사)PIE나다운청년들 _ 청년배움지원사업
직장이나 학교에 속하지 않는 학교 밖·사회 밖 청년,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우는 고립청년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_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전국 사회복지관을 통해 저소득층과 지역사회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_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청년 부채 및 금융 소외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_ 청소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과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며, 그룹홈 및 아동복지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청소년부모지원키메이커 _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청소년부모가정의 안전한 출산 및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나눔은희망과행복 _ 노숙위기청년주거지원사업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 및 재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노숙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노숙예방과 탈노숙을 위한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_ 가정밖청소년교육지원사업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함께 많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과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책이 자립준비청년의 삶 속에 더 단단히 내려갈 수 있도록,
다름이 차별로 남지 않도록.

그리고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을 또 다른 '청춘'들에게도
보통의 일상, 보통의 청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통의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공명을 만들어가는 길에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epiilog

세상의 변화를 만들다

열여덟
어른,
공명하다

자립준비청년 23년 임팩트 보고서

아름다운재단

발행일 2023.12.19
발행인 한찬희
발행처 아름다운재단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6
전화 02-766-1004(대)
이메일 give@beautifulfund.org
홈페이지 <https://beautifulfund.org/>
디자인 해든디앤피 02-2266-6372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